

한 뜻 되어 굳게 뭉쳐나가야

일공 스님



원융종 종정

이 우주의 주인이오 삼계의 스승이오 사상의 아버지이신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무리를 이끄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념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인류에게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나라의 안정에 힘쓰고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꾀하여야 하고 민족의 번영만이 오직 평화통일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우뚝하는 어두운 땅 북녘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고무내리시어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생의 용기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조국은 민족번영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굳게 뭉쳐나가야 함은 오늘의 세계 역사적 현실에 있어서 원융회통되어야 합니다. (하락)

육근의 몸 떠나 허공의 몸 깨치라

면철 스님



불입종 종정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나누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산과 들에 지천으로 핀 꽃들도 손을 흔들며 죽어도 죽지않는 도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나뭇가지에 가벼운 몸을 달린 산새들도 죽지않는 이치를 저도 안다고 노래합니다. 바로 그 노래소리가 이치 그 자체입니다.

실로 죽어도 죽지않는 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부처님은 오셨습니다. 육근의 몸을 떠나 허공의 몸을 깨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윤회의 파도에 떠 잡가지 말고 오늘의 삶을 원만히 가꾸어 성불의 길에 발판을 놓는 거룩한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산하대지 일체 만물이 한 몸

혜안 스님



무량종 종정대행

사생의 자부(慈父)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육도중생을 구제코자 먹구름 헤치고 맑은 햇빛 쏟아지듯 미혹한 사바세계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네. 날가고 달가고 세월은 무상(無常)하여 만사가 잘라로 영적으로 들고 도는데.

오육(五慾)의 집착으로 고통에서 신음하는 일체 중생을 무명(無明)을 걷어내고 참된 본래면목을 뽐여 영원한 안락국토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인도하려 오셨네.

한줄기 빗물이 독초 약초 가리지 않고 백가지 꽃피우고, 삼라만상 두두물물(頭頭物物) 정연한 질서 산하대지 일체 만물이 한 몸이오 분신이니 제반사가 인연소치 내 탓인줄 알아차리고 투쟁과 마음과 탐욕을 버리고 우리 서로 다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내안의 부처님 끌어냅시다

봉해 스님



(재일불교종) 종정

내안의 부처님을 끌어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나무아미타불은 우리 밖의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나의 참 생명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남들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어 될 남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뀔 때 자정이 바뀌고, 내가 바뀔 때 나라도 바뀌고, 내가 바뀔 때 세계가 바뀝니다.

자성삼매 등불 밝히자

봉암 스님



일불선교종 종정

하늘에 달이 지면 달이 사라졌다 말하고 달이 뜨면 달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달은 항상 밝은 그대로 이듯이 부처님도 이와 같이 오고 감이 따로 없고 항상 중생들을 향해 자성삼매의 등불을 밝히도록 섭수하시는 것입니다. 자성삼매를 따라 고요한 마음을 이루면 이를 정(定)이라 하고, 고요한 마음을 통해 밝은 공덕을 이루면 이를 혜(慧)라고 하는 것이니 고요한 마음은 곧 밝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처럼 등불은 빛의 몸이 되고 빛은 등불의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과 밝은 지혜는 우리들의 마음인 자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니 등불과 빛은 그 근본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성삼매의 등불을 밝혀 밝은 지혜의 공덕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갑시다.

생사를 벗어나라

운허 스님



미륵종 종정

무거무래(無去無來) 하처거향(何處去向) 유유일도(唯有一道) 심지작법(心地作法) 오도무애(悟道無礙)

가고올이 본래 없는데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오직 한길이 있을 뿐이로다 심지법을 잘 다스리면 도를 깨쳐 걸림이 없느니라

마음 있는 곳에 불교있다

죽산 스님



임제선학원 종정

기묘어래진실의(已如來眞實意)는 사대본공(四大本空)이며 오온비유(五蘊非有)요.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증선봉행(衆善奉行)함이 시위파라밀(是爲波羅密)이로다.

일체 중생들이 웃기 어미여 부처님의 사파강림(娑婆降臨)을

봉축(奉祝)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향기(香氣)로 청정력(淸淨力)을 증장(增長)하니

마음 있는 곳에 불교 있음일지니, 어찌 불교가 어렵다 하리요.

이웃 돕고 남 따뜻하게 배려

덕암 스님



법성종 종정

범사(凡事)에 유인정(留人情)이면 후래(後來)에 호상견(好相見)이니라. 인간은 언제나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이웃을 돕고 남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자비의 원리이며 최고의 미덕(美德)일 것입니다.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정(人情)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 인정(人情)에 감복(感服)하여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나눔의 정신이며 부처님 마음입니다.

삼처전심의 소식 들어라

신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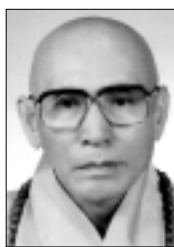
대원종 종정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551년이 되었는데, 오랜동안 변하지 않는 광장 설을 축하하고, 끝없는 세월 빨리 가니 바르게 정진하여서 삼처전심의 소식을 더욱 생각나게 하네.

부처님 오신 참뜻을 열심히 공부수행 정진하여 전성이 없는 세계평화와 조국통일 국민 대통합 경제발전과 서로 다루지 않고 화합하는 일등국민이 되어 불국토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육근의 문에서 금빛광명 나오네

범수 스님



삼계종 종정

버릇없는 국화는 흰머리를 비웃는데 남은 날 간만에 의지하여 주심이나 이겨볼까 친구는 산중에서 보낸 숲이 눈었는데 찬 기러기 때루기는 강 위에서 날고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까 언제나 마음 간직하여 있지 말 것이니 생각 생각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진 곳에 이르면 육근의 문에서 성스러운 금빛광명 찬란하게 나오네.

극락정토 인연되어 성불을

회암 스님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삼라만상의 그림자 그 가운데 나타나고 한덩이 뚜렷한 밝음은 안팎이 따로 없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연등불을 진경하고 다경토록 인연하신 되셨다네

오늘의 석가탄신 봉축으로 업겁을 녹이고 극락정토 인연되어 성불하소서

보지 아니함이 봄이거늘

각암 스님



전통조계종 종정

불무근경상(佛無根境相) 불견명견불(不見名見佛) 운하여모니(云何於牟尼) 이능유찬야(而能有讚也)

부처님께선 근(근) 경(경)에 상(相)이 없으시어 보지 아니함이 봄이거늘 어찌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사바세계가 불국정토다

혜공 스님



삼륜종 종정

동산에 해 오르고 서산에 달 기우니 세월이 오고 감을 뒤라서 모르나

오고 감이 멀촌 곳에 우리 세존오시니 만 생령의 축복이라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해하며 기쁨과 슬픔을 서로 아우르니 사바세계가 불국정토 화하도다.

세상시비에 얽매이지 말라

혜봉 스님



해동종 종정

모두가 축복하고 받는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밝힌 하나의 등불은 천둥 만명이 되어 사방세계를 밝힙니다.

세상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화합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아귀부처님의 일곱걸음이 온 누리에 이르는구나. 나무석가모니불.

눈먼 말이 요령소리만 따름이라

승훈 스님



三寶조계종 종정대행

수기인신이신(隨其人信而信) 수기인주이주(隨其人做而做) 시맹마수령어(是盲馬隨鈴如) 종부지향차야(終不知向處也)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믿고 그 사람의 지음에 따라서 지으면 이는 눈먼 말이 요령소리만 따름이라 마침내는 향하는 곳 알지 못하리랴!

부처님 품안 자유자재한 삶

일송 스님



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우리의 마음가지이 어떻게 따라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 났느냐 보다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사느냐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불공을 올리는 가장 큰 뜻은 나의 지난 인생이 어떠했는가 돌아보고, 나의 지금 마음가지이 어떠한가 점검해 보고, 나의 마음가지이 어떻게 가질 것인가 다짐하는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우리의 인생을 구고구난하시는 보살님들의 위신력으로 극복하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품안에서 자유자재한 삶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지암 스님



해동불교 임제종 종정대행

생이라 죽음이라 하니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의 생애를 회상하면 바로 위대한 사상의 가르침. 그 공덕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일찍이 전하는 마음이로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자성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속에 갈김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밝음을 맞아,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 보고 진정한 대자유의 길을 걸어 갑시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법광 스님



세계불교 임제종 종정대행

진리의 광명이 가득히 빛나는 부처님 오신날!

마음속의 탐심과 어리석음을 지우고

대승의 도를 원만히 깨달아 세상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기원합니다.

만가지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온 누리를 장엄하는 도다.

나무석가모니불.

청정성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정관 스님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사바세계가 삼독 암흑인데 오색광명 비추며 나누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이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탐진치에 물들어 거기에 가득차고 미혹으로 가득한 자기를 참회로 놓아버리고 참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안의 본래 청정성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생명체와 산하 대지가 공존공생의 삶이 되도록 바로 보고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하니 사바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오심을 찬미합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혜인 스님



조계종삼학불교 총무원장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중요속에서도 중요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질병속에서도 질병 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쾌락원 환경에 물들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